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유법민 과장(044-203-4330), 김등용 사무관(4333)

산업부 1차관, 조선해양 기자재업계 현안사항 청취

- 6.3(금), 조선해양기자재조합 회원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6월 3일(금) 부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을 초청하여 **기업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 개요 >

◇ 시간 / 장소 : '16. 6. 3(금) 14:00~15:00 / 부산역 회의실
◇ 참석자(13여명) : 산업부 1차관, 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 업계대표 등

○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 부산, 경남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이 참석

□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과잉과 수요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의 현황**과 산업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유가 지속으로 해외 발주가 60% 이상 급감하였고 국내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손실 확대로 업계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다고 언급

- 또한, 수요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비중이 큰 우리 조선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조선업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커서 불황기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

○ 이 차관은 우리 조선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 전반의 **과잉 공급능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하여,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조선사 공동으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지난 6.2일 지침 초안이 공개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상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등 지원사항들이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컨설팅 결과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

○ 또한, 조선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

-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고용 안정화 정책 등을 시행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기자재 기업인들은 지금처럼 조선시황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의 **업종전환** 및 **다각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개별 업체들의 현황, 업종구성, 연관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1)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초청 간담회 개요
(참고2) 산업부 1차관 모두 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등용 사무관(☎ 044-203-4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6-03 13:38:11

참고1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초청 간담회 개요

□ **(일 시)** '16. 6. 3(금), 14:0~15:00(60분)

□ **(장 소) 부산역** 內 회의실

□ **(참 석) 산업부 1**차관(주재), 한국·부산 기자재조합 이사장 외 기자재 업체 관계자 등

□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14:05 (5분)	◦ 참석자 소개	
14:05～14:15 (10분)	◦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 환영인사	
14:15～14:58 (43분)	◦ 기업별 의견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14:58～15:00 (2분)	◦ 마무리	

※ 산업부 1차관 모두발언까지 언론공개

□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 관	이관섭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법민
		지역산업과 사무관	이태준
단체·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윤소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	이동형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	센터장	정창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배정철
기업	**㈜KTE**	회 장	구자영
	㈜에스앤더블류	회 장	정화섭
	㈜삼공사	회 장	정해룡
	선보공업(주)	대 표	최금식
	㈜한라엔지니어링	대 표	현상웅
	해성공업	대 표	김재성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6-03 13:38:11

참고2 산업부 1차관 모두 발언

※ 실제 발언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 말씀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조선해양 기자재산업은
조선산업 생태계의 한축으로서,
우리 조선업이 이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기여한 바 가 큽니다.

부울경, 전남지역에
기자재업체가 약 90%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자재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조선소에도 대규모 기자재를 납품하는 등
작년에도 약 16억불 수출을 달성,
수출 역군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조선산업 동향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외 선박발주가 60% 이상 급감하였고
국내 선박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손실 확대로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업체 수주잔량 전망(척수, 現수주잔량 기준) : ('16.4)628→('16.12)372→('17.12)81

특히 최근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수요부진과 함께,
공급능력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주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수요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우리 조선업 특성상
현재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조선업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커서
불황기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조선업 사업재편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조선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업 전반의 과잉 공급능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직면한 장기적·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한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업은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계획할 정도의
여유조차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조선사 공동으로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적정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6-03 13:38:11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조선업체들은
향후 수주전망과 우리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능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유망 선종에 특화하여,
우리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넘어서,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는 민간 컨설팅 결과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8월부터 발효예정인 기촉법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문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종 조세 감면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선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고용 안정화 정책 등을 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오늘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남들 보다 한 발 앞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우리가 나갈 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모두 말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